



3면

'연대와 공생' 학술포럼

전주매일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음 10월 17일) 제339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443억원 규모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가 28일 부안군 변산면 일원에서 기공식이 열린 가운데, 흥인기 전북도 새만금개발과장, 김만기 전북도의회 부의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등 참석자들이 발파 준비를 하고 있다.

체류형 관광시설, 부안 변산에 들어선다

1443억 민간자본 투입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기공식 2027년 상반기 개장 목표... 숙박·공연·놀이시설 갖춰

1,443억원 규모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가 28일 부안군 변산면 일원에서 기공식을 개최하며 그 시작을 알렸다.

챌린지테마파크는 2027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올해 말 부지 조성을 시작해, 2024년 건축물 인허가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착공 후, 2026년 공사를 마무리한다.

기공식에는 흥인기 전북도 새만금개발과장, 김만기 전북도의회 부의장,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및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챌린지테마파크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참석자 축사, 테이프 자르기(커팅), 발파 등으로 진행됐다.

챌린지테마파크는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개발 계획이 발표된 후 공모를 통해 민간투자가 실현된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11월 6일 제3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약 2만5,000평 규모의 부지에 숙박시설(콘도) 150실,

단독형빌라 15실 등 관광 숙박시설이 조성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시설과 대관람차, 애견 숙박시설(호텔), 공통전시장 등도 함께 들어선다.

또한, 기존 산책로인 마실길도 재정비해 전면 개방됨에 따라,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이 되어, 그동안 거쳐가는 관광지로 여겨졌던 새만금을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흥인기 전북도 새만금개발과장은 "챌린지테마파크가 새만금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더욱 빛나는 새로운 상징이 되길 바라며, 새만금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도,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에코힐링 1번지' 프로젝트 일환 2027년까지 총 4900억원 투입... 인프라 21종 503곳으로 확대 취약계층·보행약자 등 이용편의 위한 복지시설 환경개선 나서

전북도가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에코힐링 1번지' 프로젝트 나선 가운데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전북도는 2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건강,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숲을 이용한 산림복지서비스의 국민적 수요에 발맞춰 오는 2027년까지 4,900억원을 투자해 기존 산림복지 인프라 21종 269곳에 234곳을 추가로 조성해 503곳으로 확대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이 계획은 엄마 뱃속부터 유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휴양, 문화, 교육, 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가 담는 것으로 지난 10월 산림청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

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 극대화도 '산림레크리에이션'을 구현하기 위해 발표한 산림복지서비스 10대 추진 과제와도 연계했다.

도는 산림 치유·휴양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과 인구 구조변화, 산림레포츠 및 소규모 모임, 가족단위 이용자의 증가와 휴양과 치유 등을 함께 복합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변화에 맞춰 산림복지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인프라 확대와 이용편의 제공, 산림 교육·체험의 서비스 질을 개선,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갈 실천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와 '취약계층 이용확대를 위한 산림복지 인프라', 그리고 '유아·청소년의 창의성·인성함양 도모를 위한 산림교육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인프라

는 '출생기·유아기 산림체험', '청소년·청년기 산림교육', '중장년기 산림휴양', '노년기·화년기 생활속 안전한 산림복지'로 분류한 맞춤형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 보행약자 등의 이용편의를 증진해 누구나 쉽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나눔숲과 무장애나눔길, 복지시설 환경개선에 300억을 투자해 3종 137개소를 192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함께 유아·청소년·성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숲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 운영을 6명에서 165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등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등의 의무가 강화되고 탄소흡수원인 산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탄소중립과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도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업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ESG 경영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 전주시의 (사)더숲과 익산시의 (사)푸른익산민들레는 기업과 시민의 헌금과 현수를 통해 도시숲과 정원 등 원공간을 조성해 시민에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민간협력과 기업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은 청정하고 빼어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이를 활용해 에코힐링 1번지로 만들어 일과 삶, 휴이 함께 어우러져 발전할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진화시켜겠다"며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들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글로벌 수소 메카 도약 '전력질주'

완주군, 국가산단 기업설명회 참여... 수소특화 산단 홍보

완주군이 글로벌 수소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수소특화 국가산단에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수소 관련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완주군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신규 국가산단 기업설명회'에서 참가해 완주군의 수소특화 국가산단 추진을 적극 홍보했다.

이날 기업설명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재하고 한국도지주력공사가 주관한 자리로 신규 국가산단단지 6개 후보지 지자체와 100여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완주군은 수소 산업 육성 의지와 성과를 설명하고, '우리의 꿈, 세계 1등 수소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초격차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에서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해 큰 주목을 받았다.

완주군은 국내 유일 수소 상용차와 수소 저장용기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미 조성된 약 32만평의 상용차 중심의 산단단지가 위치해

산단간 연계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며, 또한, 호남고속도로, 새만금호남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및 국도·지방도 등이 연결된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갖고 있어 교통·물류 수송이 원활한 것도 큰 강점이다.

특히, 2019년 수소시범도시 선정과 지속적인 수소 산업 육성 정책 노력으로 수소저장용기 신뢰성 평가센터·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신재생 연계 ESS안전성 평가센터 건립과 수소 생산시설 및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고,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및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 사업 등도 진행하는 등 차별화된 기업 지원 전략을 갖고 있다.

이에 더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 및 지원과 성공적인 국가산단단지 추진을 위해 민선8기 들어 미래전략사업단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윈스톱 기업 애로 사항 해결과 최고의 인센티브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발로 뛰는 의회,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소통하며 함께하는 고창군의의회가 되겠습니다.



고창군의의회 의원일동